

호평받았던 광주시 코로나 대응, N차 감염에 '시험대'

‘접촉자가 확진자로’ 최근 사흘간 11명 양성 판정
최초 감염원 오리무중...보건당국 “확산방지 총력”

최근 3일 동안 광주광역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1명이 발생했다. 그중에는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거나 N차 감염으로 인한 확진자까지 발생하면서 그동안 호평을 받았던 광주시의 코로나19 대응이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달 광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1분기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전국 실적 인정사례 코로나 대응 부문에서 4가지 사례가 선정됐다. 사례는 △코로나19 고위험군 대상자 대응매뉴얼 자체 강화 적용 △대구지역 코로나 확진자 광주 병상나눔 격리치료 실시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 운영이며, 규제개선 분야에서는 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이 선정됐다. 또 코로나19 고위험군에 대한 자가격리해제 조건을 자체적으로 강화 적용해 3가지 검사기준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3주간 격리기간을 두는 선제적 대응으로 지역사회로의 감염가능성을 최소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진자를 광주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으로 이송해 완치 후 귀가시킨 대구지역 확진자 병상나눔은 국가 재난상황 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사례로 평가됐다. 여기에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의 병상나눔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88일 만에 광주에서 지역사회 내 전파가 이뤄지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3월17일 유령여행을 다녀 온 딸과 접촉한 50대 여성과 남편이 잇따라 광주 17, 18번 확진자로 분류됐고 이들과 접촉한 30대 여성이 같은달 31일 24번째 확진자가 되면서 지역사회 전파가 발생한 경우였다. 25번부터 32번까지는 모두 해외 유입 확진자로 지난 3월31일 발생한 광주 24번 확진자가 사실상 지역사회 감염 마지막 확진자였다. 지난달 20일 양성 판정을 받은 33번 확진자의 경우 대전 50·55번 확진자와 접촉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33번 확진자 이후 지역에서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으면서 지역사회 감염에서는 제외됐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발생한 34번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가 확진자로 바뀌는 등 지역사회 감염이 늘면서 그동안 호평을 받아온 광주시의 방역이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광주에서는 34~44번 등 총 1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그중 38번, 42번 확진자를 제외한 9명의 확진자가 광주 동구에 위치한 광복사와 연관이 있거나 광복사를 다녀온 확진자로부터의 N차 감염으로 이어진 상황이다. 34번 확진자는 지난달 23일 광주 동구에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아”...곤혹스러운 광주시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아 지역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30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박항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이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위치한 광복사를 찾자 36번 확진자와 만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35번 확진자는 34번 확진자의 남편이고, 37번 확진자는 34번 확진자와 병원에서 접촉한 것으로 보건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39~41번 확진자는 36번 확진자와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 43번, 44번 확진자는 광주 37번 확진자와 광주 동구의 한 건물에서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검사를 받았고, 양성 판정

을 받았다. 여기에 광주 42번 확진자의 경우 아직 정확한 감염경로 등이 파악되지 않으면서 지역 감염 확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확진자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세부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 중”이라며 “지역사회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신속한 방역조치와 함께 검사를 실시하는 등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방역당국의 물샐틈 없는 방역망 구축도 중요하지만 방역당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들 한분 한분이 경각심을 갖고 예방수칙을 지켜주시는 것이 최고의 방역대책”이라며 “예방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정승호 기자

‘야속한 코로나’...올해 수학여행 폐지

광주시교육청, 학생 안전 위해
올해 광주지역 학교의 수학여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폐지된다. 광주시교육청은 코로나19 심각단계가 이어지면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수학여행 폐지를 결정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다만 수학여행 이외의 현장체험학습은 학교별로 학교장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결정할 방침이다. 조인호 기자

광주시교육청이 수학여행을 폐지한다는 내용의 카드뉴스를 페이스북에 올리자 학생들은 아쉬움을 표현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반대가 있어서 올해 수학여행을 폐지하기로 했다”며 “학생들의 안전이 우선인 만큼 시교육청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학생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 ‘항공특화산업단지’ 조성 본격화...2022년 완공

내달 착공...35만㎡ 규모
전남도는 지난달 30일 무안 항공특화산업단지 계획이 승인·고시됨에 따라 산단 조성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무안군은 현재 산단 편입토지의 76%를 확보했으며, 8월 착공에 들어가 2022년 완공할 계획이다. 이번 산단 조성은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 후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와 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이뤄졌다. 무안 항공특화산업단지는 망운면 피서

리 일원에 35만㎡ 규모로 448억 원이 투입돼 조성되며, 무안국제공항 및 2025년 개통될 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역과 인접해 우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 무안국제공항과 연계한 항공정비 산업 중심의 산단이 조성되면, 고급 정비기술을 갖춘 인재육성은 물론 연관기업 유치를 통한 대규모 일자리 확보와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기대된다. 이미 항공정비와 운항서비스 관련 6개 기업체와 협약을 체결, 분양에도 문제가 없으며 3000여 명의 고용 창출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

성능향상 지원을 위한 정비·수리·분해 조립 전문화 산단을 조성, 일자리 창출 등 블루 이코노미 프로젝트 실현에 한발 더 나아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무안국제공항 인근에 들어설 항공특화산업단지 조감도.

만나서 영광입니다!
영광의 청정자연과 어우러져 탄생한 건강한 우리 식품을 만나보세요